

야구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오늘 왜 이렇게 경기가 몰려 있지?” 싶고, 또 어떤 주는 선발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확 꺾이잖아요. 문제는 그 흐름이 감으로만 쌓인다는 거예요.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을 보려면, 결국 공식 일정이 제일 깔끔합니다. 특히 MLB는 한국에서 중계 타이밍 잡는 게 쉽지 않은 편이라 더더욱요. 그래서 오늘은 MLB 공식 schedule로 시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로” 보는 방법과, 중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될 헛갈리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KBO도 같이 쓰면 한국 기준 경기 시간 감각이 같이 잡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 schedule”은 MLB가 제공하는 schedule 페이지 기준이고, KBO 쪽은 일정/결과 페이지에서 월별이나 일일 편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랑 같이 생각하면 편해요. 둘 다 최신 변동을 공식 페이지가 반영하니까, 야구 중계사이트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시간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딱 그거잖아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이 셋을 결국 “정확한 시작 시각”과 “오늘 경기 맞나?”로 귀결시키면, 공식 일정 보는 습관이 제일 단단해져요.

MLB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으로 잡히는 이유

MLB의 정규시즌은 schedule 형태로 쭉 이어집니다. 2026 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하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로 잡혀 있어요. 또 Opening Day에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미국 동부시간(ET) 기준으로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경기 같은 식으로, 시간대가 여러 갈래로 섞여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한국(KST, UTC+9)에서는 ET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UTC-4를 쓰기 때문에, 한국은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저녁 경기면 한국에서는 새벽이나 오전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LB중계를 보면서 “어제는 잘 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르지?” 같은 체감이 생기는데, 그게 일정의 구조 때문이라는 걸 공식 schedule로 보면 빨리 납득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MLB는 한 날이라도 ET 기준으로 시작 시간이 다르게 뜰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같은 요일인데도 오전 중계, 점심 전후 중계, 또 아주 이른 새벽 타임까지 폭이 생깁니다. 공식 schedule는 이런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서, 시즌 전체를 훑을 때도 “어느 시점에 내 생활 리듬이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시즌 전체 흐름”이 보이는 관찰 방식 2가지

MLB official schedule로 시즌 전체 경기 흐름을 보려면, 그냥 달력 넘기듯 보는 것보다 관찰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일정의 리듬, 다른 하나는 내 시청 가능 시간대의 변화예요.

첫 번째, 리듬은 “언제 여러 경기가 붙는지, 언제 상대적으로 한산해지는지”를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공식 일정에서 해당 구간을 통째로 훑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Opening Day를 전후해서 첫 구간은 시작 시간들이 ET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미 공지로 드러나니까, 한국으로 옮겨볼 때 내 시간대가 어떻게 걸리는지도 같이 보이죠.

두 번째, 내 시청 가능 시간대는 한국 입장에서 더 현실적입니다. 한국은 KST라서 고정이지만, 미국 동부는 서머타임 때문에 ET가 바뀔 수 있어요. 즉 한국의 “이른 오전”이 어느 구간에서는 “아주 이른 새벽”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 변화를 달력으로 미리 보면, 야구중계사이트에서 갑자기 바뀐 방송 시간 때문에 멘붕 오는 빈도가 줄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덧붙이면, 일정만 보고 “오늘은 무조건 이 시간”이라고 확정해버리면 사고가 나요. 야구는 취소나 순연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공식 일정 페이지는 이런 변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 확인은 “결제 직전 확인” 같은 느낌으로 짧게라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 페이지가 최신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KBO랑 같이 보면 MLB가 더 편해지는 이유

MLB를 보면서 한국 중계 타이밍이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KBO를 같이 보면 오히려 감이 빨리 잡힙니다. KBO는 2026 정규시즌 개막이 3월 28일이고,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러요. 그리고 개막전은 잠실, 대전, 문학, 대구, 창원 5개 구장에서 열립니다.

또 한국 야구 일정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시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잔여 경기 편성 공지 기준으로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 시작으로 잡힌다고 되어 있어요. 즉 KBO는 계절이 지나면서 “저녁 경기 중심이나, 더 일찍이나”가 바뀌는 구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MLB는 기본적으로 ET 기준으로 배치되고, 한국 시간으로 옮기면 13시간 또는 14시간 차이가 생기니까, KBO처럼 “저녁에 보는 야구” 감각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KBO의 시간 변화를 먼저 머릿속에 깔아두고, MLB는 “ET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공식 일정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같이 굴러요. 그러면 mlb중계 볼 때 시간이 갑자기 더 이르게 느껴져도, “아 이 시기에는 시차가 그렇게 걸리겠구나” 하고 덜 놀라게 됩니다.

공식 schedule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들

공식 일정은 깔끔하지만, 화면을 대충 보면 또 헛갈려요. 특히 야구중계사이트를 여러 군데 보다가 넘어오면 “내가 지금 보는 게 최종이 맞나?”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열 때 아래 것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 경기 시작 시각이 최신으로 반영됐는지
- 경기 진행 구장이 어디인지(특히 홈/원정 체감이 달라질 때)
- 당일 편성에서 내가 찾던 팀 경기인지
- 중계 채널이나 관련 안내가 일정 페이지에 같이 뜨는지
- 우천 취소나 순연처럼 변동 이력이 있는지

이 다섯 가지는 “정확도”에 직결돼요. 야구 중계를 보면서 제일 짜증나는 건, 공을 던지기 [야구중계 사이트](#) 시작했는데 내가 “오늘 경기 시간이 다르네?” 하고 뒤늦게 깨닫는 상황입니다. 공식 일정 페이지는 최신 변동을 반영하는 방향이라, 결국 확인하는 습관이 시간을 아껴줍니다.

Opening Day 전후, 시즌 전체를 읽는 핵심 포인트

2026 MLB는 3월 25일 자이언츠-양키스로 시작하고, 3월 26일이 Opening Day라고 했죠. Opening Day에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경기도 같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즌이 시작되는 초반부터 한국 시청 시간대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니까, ET 4:00 p.m.면 한국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쪽으로 이동하고, ET 8:05 p.m.면 한국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요. 정확한 분 단위는 시차가 UTC-5냐 UTC-4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 “초반에 일정 폭이 넓다”는 걸 알면, 중계를 고르기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은 팬 입장에서 기대감이 큰 구간이라, mlb중계도 더 많이 켜게 되잖아요. 이때 공식 schedule로 “첫 주의 시작 시각 분포”만 대충 파악해도, 무리해서 새벽에 전부 다 보려다가 다음 날 생활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야구는 길게 보려면 컨디션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일정이 도와줘요.

시간대 변환 감각, 숫자 하나로 끝내기 어렵다면

시차는 단순히 “13시간”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ET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UTC-4를 쓰기 때문이고, 한국은 KST(UTC+9)라서 그만큼 한국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한국이 ET보다 13시간 차이로 느껴지고,

또 어떤 주는 14시간 차이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숫자 계산 못 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식 schedule에서 한국 시간이 아니라 ET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체크하는 방식이 실전에서 편합니다. 왜냐면 MLB schedule은 ET 기준으로 공지된 흐름이 이어지고, 한국 방송 안내도 그 흐름을 따라가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ET 시작 시각을 보고 한국에서 내 생활에 어떤 구간이 걸리는지”를 감으로 잡는 쪽이 덜 힘들어요.



짧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편합니다.

- ET 시작 시간이 저녁이면 한국은 다음 날 새벽 또는 오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 ET가 UTC-5냐 UTC-4냐에 따라 한국 시간은 1시간 정도 달라질 수 있다
- 그래서 고정 시간처럼 외우기보다, 공식 schedule에서 “당일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건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라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써야 할 때, 공식 일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는 이유는 “편의”예요. 중계 화면 접근성, 모바일 최적화, 사용자 경험 같은 거요. 그런데 편의는 편의고, 일정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공식 schedule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식 일정 페이지가 최신 변동을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자주 쓰는 패턴은 이거예요. 공식 schedule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경기와 시작 시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방송 접근을 맡깁니다. 그러면 “방송은 뜨는데 내가 본 경기랑 다른 경기였네” 같은 실수 확률이 확 줄어요.

또 KBO는 일정/결과 페이지에서 월별 일정, 일일 일정, 순위 페이지까지 제공된다고 되어 있죠. MLB도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공식에서 ‘무엇이 언제 있는지’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중계 플랫폼을 고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시즌 흐름을 따라갈 때 흔한 함정들

여기서 함정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공식 schedule을 보고도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일정이 “나를 기준으로” 정렬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MLB는 같은 주라도 팀별 이동, 경기 시작 시간이 다양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Opening Day부터 이미 4:00 p.m. ET 경기와 8:05 p.m. ET 경기가 같이 공지됐다고 했죠. 이처럼 초반부터 시간대가 넓으면, 한국에서 보는 사람은 “오늘은 늦게 시작하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계는 그 느낌을 믿으면 늦습니다.

또 하나는 KBO와 섞어 보다가 생기는 착각이에요. KBO는 9월 15일 이후 경기 시작 시간이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으로 편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기준 저녁 루틴이 잡히는데, MLB는 ET 시작 시각과 시차 때문에 그 루틴이 깨져요. 루틴이 깨지는 걸 “내가 잘못 봤나?”로 판단하지 말고, “야 MLB는 원래 이렇게 시차가 작동하는 구조구나”로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결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법

MLB 공식 schedule로 시즌 전체 흐름을 보면 좋은 점은, “지금 당장”만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 내 시간이 흔들리는지”까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3월 25일 첫 경기, 3월 26일 Opening Day로 시작하는 구조, 그리고 Opening Day에 4:00 p.m. ET와 8:05 p.m. ET 같은 시작 시각이 함께 공지되는 배치. 이런 정보가 한국 시청 관점에서는 꽤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공식 schedule에서 보고 싶은 팀 또는 내가 자주 보는 시간대(예, 한국에서 오전으로 들어오는 구간)에 해당하는 경기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야구중계사이트로 들어가서 중계 접근을 확정하는 흐름. 이 순서가 제일 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원하면, 다음 글에서는 같은 “공식 일정” 관점으로 KBO 일정 페이지에서 월별/일일 흐름을 보는 법이랑, MLB 일정 이랑 같이 굴릴 때 어떤 식으로 캘린더를 짜면 좋은지까지도 실전 중심으로 이어서 써볼게요.